

# 예술을 입은 와인...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78

와인에 있어 레이블(label)은 소비자가 와인을 만나는 첫 지점이다. 생산지나 품종, 생산연도 같은 와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기도 하기만 와이너리의 철학 혹은 분위기를 나타내거나 때론 와인이 자신만의 얘기를 들려줄 때도 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고, 또 그 자체가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의 세번째 와인인 '셰이 플랫 빈야드 피레네 쉬라즈 아티스트 레이블'은 꿈과 도전을 입었다. 프랑스 론 '시라'의 명가가 만든 호주 '쉬라즈' 와인이니 말이다.

엠 샤푸티에 에두아르 빠요(Edouard P ayot) 아시아 수출이사는 9일 이 와인의 출시에 맞춰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아티스트 레이블은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독특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시리즈. (왼쪽부터) 엠샤푸티에 데상트 아티스트 레이블, 엠 샤푸티에 레 메이소니에 아티스트 레이블, 셰이 플랫 빈야드 피레네 쉬라즈 아티스트 레이블. /금양인터내셔널

한 프로젝트로 이전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한국 시장의 성장과 매력에 흥미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며 "미학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가와 인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엠 샤푸티에는 프랑스 론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다. 대를 이어 무려 2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론과 시라 품종을 가장 잘 알고, 또 잘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

는 곳이다. 투르농은 엠 샤푸티에가 지난 1997년 호주에 세웠다. 시라 품종의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었다. 기존 호주 스타일의 쉬라즈가 아니라 서늘한 기후와 피레네 지역의 토양 등 테루아를 그대로 투영하는 샤푸티에 스타일을 구현했다.

빠요 이사는 "같은 시라 품종이라도 론은 암석 위주의 토양이라 미네랄과 입안에서 가득차는 느낌을 받는데 반해 피레네는 허브향과 신선함이 있다"며 "그럼에도 서늘한 기후조건이 비슷하고 양조과정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아 모두 유연하고 우아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엠 샤푸티에의 도전 정신을 반영해 와인에 입힌 작품은 최승윤 작가의 '시작의 단면'이다. 보통 시작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서려야 무엇이든 시작이 가능하다.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던 엠 샤푸티에의 순간이 서려있는 셈이다.

엠 샤푸티에는 와인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테루아에 대한 존중이라고 본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 모든 그림은 테

루아를 반영해 그대로 전하고, 와이너리는 모서리 한 쪽에 작가 사인을 하는 정도다.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의 첫번째 와인은 '엠샤푸티에 데상트 아티스트 레이블'이었다. 장마리아 작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캔버스 위 흠을 그대로 바른 듯한 자연적인 질감을 레이블에 녹여내 엠 샤푸티에 와이너리의 상징이기도 한 유기농, 친환경의 의미를 담았다. 초창기부터 유기농법을 도입했고, 지금은 산하의 모든 포도밭은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만 재배하고 있다.

두번째 와인은 '엠 샤푸티에 레 메이소니에 아티스트 레이블'이다. 도예가 신다인 작가와 손을 잡았다. 토양과 뿌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조형물로 레이블을 디자인했다. 엠 샤푸티에의 자연주의적 철학을 고스란히 녹여내 흠의 생동감에서 테루아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의도했다.

아티스트 레이블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첫번째로 내놓은 데상트의 경우 첫 해에 기존 대비 6배 이상 팔리더니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와인이 됐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진정으로 윤리적인 태도는?”

영화는 밖에서 만났으면 얼굴에 가래침을 '뱉' 뱉고 상종 안 했을 인간들과 겸상하게 만든다. 범죄자를 증오하는 일은 쉽다. 하나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어쩌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가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그가 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짚을 수 있게 된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해 그를 동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대개 범죄자는 사회가 만들어 낸 것이기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뜯어고쳐 괴물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저서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영화의 태도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그 영화가 악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진정으로 윤리적인 태도는, 선의 기반이 사실상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악의 본질이 보기보다 복잡적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선의 악'과 '악의 선'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태도"라고 말한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신형철의 첫 영화평론집이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다룬 평론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영화는 가족과 학교 친구들을 총으로 쏘서 죽인 케빈의 과거와 현재를 찬찬히 훑는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케빈은 언뜻 보면 어느 평범한 10대 소년 같기도 하다. 그는 때때로 고막이 찢어질 듯 자지러지게 울어 양육자의 혼을 쏙 빼놓았던 영아기를



정확한 사랑의 실험  
신형철 지음/마음산책

거쳐, 부모 속을 새카맣게 태우려고 작정한 것 마냥 늦게 말을 뱉 유아기를 지나, 엄마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춘기에 도달한다. 늘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그는, 창조주를 영영 자기 곁에 묶어둘 묘안을 짜낸다. 케빈은 영화 속 두 명의 주인공을 제외한 조연과 엑스트라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험에 옮긴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케빈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서사의 등장인물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하며 '규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케빈을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해버리면 이 이야기는 '날고 보니 아들이 소시오패스인' 한 불행한 엄마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건 공포와 연민의 감정뿐"이라고 지적한다.

24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오랫동안 앓아온 자신의 우울증을 회고하는 정신의학 에세이다. 세계보건기구 고문, 세계정신의학협회 위원 등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인 저자는 자신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우리는 대개 "약한 사람"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면 약점을 잡힌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난 괜찮다"며 손을 내젓는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낡은 폐해가 너무 크며 친구나 가족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으라고 조언한다. 환자로서 겪은 모든 것, 환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든 것.

296쪽. 1만8800원.



린다 게스크 지음/홍한결 옮김/윙북

### 인류세, 엑소더스

지금으로부터 6600만년전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로 떨어져 공룡이 멸종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기후급변이 그 원인이었다.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600~1000기가톤. 아직 놀라긴 이르다. 지난 20년간 인류가 뿜어낸 양이 600기가톤이기 때문. 그 결과 지구의 평균기온이 1.3도 상승했다. 과학

자들은 지금처럼 살아가면 2100년 지구의 기온은 6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고작 그 정도의 온도 상승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이 수치가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가 서서히 오른다.



가이아 빈스 지음/김명주 옮김/김출판

384쪽. 2만2000원.

###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라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많던 "미니멀리스트"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쩌면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란 유행을 맹목적으로 좇으며 버림의 가치성에 도취된 나머지 채움을 등한시했는지도 모른다. 책은 미니멀리즘은 "비움"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 철학"

이라고 강조한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순히 물건을 왕창 버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닌 마음속 집착을 버리고 여유를 만들어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이들이란 것이다. 정리하고 포기하는 연습.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

472쪽. 1만7000원.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 지음/이주현 옮김/데이원



▲日방위성, '자위대 군용차' 해외 유출 실태조사·방지책 연내 공표 /사진 뉴시스  
▲유엔 사무총장 "민간인 사망 규모... 이스라엘 작전 잘못됐다는 방증"

▲美국무부 "블링컨, 北 도발행위·러 무기제공 규탄"  
▲美 연준, 모건스탠리 자산관리 사업 부문 조사



▲美, 시리아 동부서 이란 연관 시설 공습... "우리 인력 보호 조치" /사진 뉴시스  
▲G7 경쟁당국 첫 공동성명 "생성형 AI 등 반경쟁적 행위 우려"